



사노피 배경은 대표, 제31회 약의 날 기념식 ‘산업포장’ 받아

- 신약개발 역량강화·제약산업 글로벌화·사회책임활동 등 세 영역에서 공로 인정
- 오승직 상무, 효과적인 공급망 관리(SCM)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영예

2017년 11월 20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제약사업부문인 주식회사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는 지난 17일 제31회 약의 날 기념식에서 배경은 대표가 ‘산업포장’, 오승직 상무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배경은 대표는 22년간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로서 유일하게 대전에 R&D 연구소를 보유하고, 사노피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21개 임상시험센터 중 4곳(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을 국내에 유치 및 유지하는 등 ‘국내신약개발 역량 강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국내제약산업 글로벌화’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사회책임활동을 통해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및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배경은 대표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약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다수의 벤처기업, 연구소, 대학, 연구중심병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R&D 생태계를 활성화 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사노피 공급망 관리부(SCM; Supply Chain Management) 오승직 상무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오승직 상무는 ‘일련 번호 및 묶음 번호 시스템 도입’과 ‘의약품 통합물류센터 구축’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사노피의 의약품 물류품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또 웹 기반 주문관리 플랫폼을 도입하여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물류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8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제 31회 약의 날 기념식은 우수 의약품을 개발, 생산, 유통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게 투여하는데 기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표창하여 제약 및 의약품 유통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통증을 없애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 개국 10 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

[참고] '포장'에 대하여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포장이 있다. 이 중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實業)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출처: 상훈법 제 19 조(포장의 종류), 제 26 조(산업포장)]